### 김재범 기자의 투얼로지 | 화창한 5월 떠나기 좋은 여행지





완만한 경사의 비탈길에 흐드러지 게 핀 유채꽃이 고즈넉한 동네 분위 기와 어우러진 선학동. '키조개 동 네'로 유명한 수문마을의 뽀얗고 부 드러운 키조개 관자구이. 한우와 표 고버섯 키조개 관자의 식감을 한꺼 번에 즐기는 식도락의 극치인 장흥

장흥 | 김재범 기자 oldfield@dogna.com



## 입도 눈도 황홀한 '살오른 장흥'

장흥은 천관산, 제암산을 등에 지고 너 른 득량만을 품에 안아 산과 바다의 볼 거리를 두루 갖추고 있다. 화창한 5월 여행으론 제격인 고장이다. 무엇보다 산 과 바다에서 나는 다양한 특산물들이 음 식 맛 좋다는 남도 지방 나들이 중에서 도 특히 미식기행에 특화되어 있다. 장 흥삼합 등의 먹거리에 입이 즐겁고, 선 학동 수려한 경관에 눈도 행복한 장흥으 로 '먹부림 여행'에 나섰다.

#### ● '한우·키조개·표고' 어우러진 맛의 조화

장흥의 미식 테마 중 으뜸은 역시 장 흥삼합이다. KBS '1박2일'에서 소개된 이후 전국적 유명세를 얻었다. 장흥은 경주, 횡성, 완주 등과 함께 소 사육으로 유명하다. 이런 특성을 살려 한우와 참 나무서 재배한 표고버섯, 득량만 갯벌의 키조개 관자를 한데 먹는 음식이다. 소 고기의 감칠맛과 키조개 관자의 부드러 움, 표고버섯의 쫄깃함 등 세 가지 식감 을 동시에 즐긴다. 재료에서 알 수 있듯 몸에 좋은 보양음식이기도 하다. 장흥읍 정남진토요시장에 전문 식당들이 모여 있다.

미식가들의 성지 '정남진토요시장' 한우·표고버섯·관자 삼합 엄지 척 통째 찌는 갑오징어 먹찜도 일품

소설가 이청준의 무대였던 선학동 마을 뒤덮은 화려한 유채꽃밭 장관 용산면 작약꽃밭 배경으로 '인생샷'



아이템이다. 오징어보다 비싼 몸값을 자 랑하는 갑오징어의 회는 쫄깃하면서 부 드러운 식감에 뒷맛으로 단맛이 느껴진 다. 하지만 봄철 갑오징어를 먹는다면 속을 꺼내지 않고 먹물까지 통째로 찌는 먹찜을 먹어야 완성이다. 시커먼 외양과 달리 고소하면서 은은하게 간이 밴 맛이 일품이다.

장흥은 전국 생산의 84%를 차지하는 키조개 산지이기도 하다. 한승헌문학산 책길 인근 안양면 수문마을이 '키조개 요즘 제철인 갑오징어도 '머스트 잇' 마을'로 특화되어 있다. 두툼하고 뽀얀

빛깔을 자랑하는 키조개 관자는 불판에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매콤한 회 무침, 탕 등으로 다양하게 즐긴다.

한국 사람의 '소울푸드'인 국밥도 이 곳서는 좀 특별하다. "국밥이 어디든 결 국 거기서 거기아냐"라고 생각한다면 아침나절 정남진토요시장을 가보자. 전 국에서 손꼽는 소 사육지답게 신선한 머 릿고기와 선지가 들어가 깊은 풍미를 자 랑하는 '인생국밥'을 만날 수 있다.

####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의 여유, 선학동

장흥군의 남쪽 끝 선학동 마을은 소설 가 이청준과 빼놓을 수 없는 고장이다. 인근에 이청준의 생가가 있고. 임권택 감독의 영화 '천년학'의 원작인 그의 소 설 '선학동 나그네'의 배경이기도 하다. 요즘은 마을을 뒤덮은 유채꽃이 장관을 이룬다. 완만한 경사의 비탈길에 흐드러 지게 핀 유채꽃밭은 마을 너머로 보이는 득량만 바다와 어우러져 보는 것만으로 힐링을 느끼게 한다.

흔한 카페나 편의점도 하나 없고, 30여 가구만 고즈넉하게 모여 사는 동네의 정 취가 정말 좋다. 유채꽃밭을 따라 난 산

책길을 쉬엄쉬엄 걸으며 느리게 흘러가 는 시간의 여유를 느껴볼 수 있다.

807m의 제암산은 기암괴석과 철쭉 평원으로 유명한 호남 명산이다. 정상에 임금 제(帝)자 모양의 3층 형태로 30m 높 바위가 우뚝 솟아 그런 이름이 붙었 다. 등산 코스가 다양하고 어느 길이나 경치 보는 재미가 있어 산행명소로 사랑 받고 있다.

원래 이곳을 대표하는 볼거리는 4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능선 가득 피는 진 분홍빛 자생 철쭉군락이다. 사자산-간 재3거리-곰재를 잇는 능선이 유명해 '철 쭉평원'으로 이름이 붙어 있다. 아쉽게 도 철쭉 만개 시기가 지나 지금 찾으면 기대했던 진홍빛 물결은 보기 어렵다.

하나 더. 용산면에서 화려한 자태로는 모란과 1. 2위를 다투는 작약꽃밭을 만 났다. 정원에 관산용으로 몇 송이 키우 는 경우는 있지만 넓은 공간에 군락을 이루어 핀 모습은 쉽게 만나기 어렵다. 뿌리를 약용으로 써서 작물로 재배하는 풍광 좋은 곳이면 어디든 선점한 그 농가들이 있다. 이미 많은 곳은 꽃대를 잘라 냈지만 꽃을 아직 그대로 보존한 공간도 꽤 되어 여행 인생샷을 찍을 만 장흥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하다.

## 레저

금요일 15 <u> 소구</u>초등이 2022년 5월 20일



제주드림타워가 서비스 고급화 전략으로 투숙 예약객에게 제공하 는 '웰컴 트리츠'

#### 제주드림타워 '웰컴 트리츠' 인기몰이

복합리조트 제주드림타워가 그랜드 하얏트 제주 예약 고객에게 제공하는 웰컴 트리츠가 호평을 받고 있다. 웰 컴 트리츠는 홈페이지나 전화, 온라인여행사(OTA)로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4월29일부터 제 공하고 있다. 객실 당 6만원 상당의 푸드와 드링크로 구 성했고 한 사람당 1개씩 선택할 수 있다. 호텔 '스테이크 하우스'의 총괄셰프인 벌튼 이가 메뉴 구성을 기획했다. 웰컴 트리츠는 9월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하나투어 '떠나자 하나만 믿고' 캠페인

하나투어는 '떠나자 하나만 믿고' 캠페인을 7월17일까지 진행한다. '항공, 호텔, 액티비티 그리고 모든 여행', 새 로운 여행 트렌드에 맞춰 선보이는 '프라이빗 여행', '여 유로운 일정의 여행', '안전한 여행' 등 4가지 테마의 상 품을 선보인다. 캠페인 기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수요 일 오후 8시에 각각 타임세일과 하나LIVE 전용 특가 상 품을 선보인다. 캠페인 모델로는 배우 김태리를 발탁했 다. 김태리 출연의 두 가지 CF를 제작해 21일 공개한다.



롯데월드의 소외계층을 초청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드림티켓' 사진제공 | 롯데월드

### 롯데월드 어드벤처. 취약층 270명 초청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 270명을 초청하는 '드림티켓'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평 소 테마파크 방문이 쉽지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여가활 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희귀질 환,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학대피해 아동 가정 등 사 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19일과 20일 희귀질환가정과 차상위계층가정 150명을 어드벤처로 초청했다. 이어 기초수급자가정, 조손가정 등 100명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방문하고, 학대피해아동가정 20명은 서울스카이를 방문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 '아이더로드 클럽' 가입자 1년새 5배 껑충

국내 걷기 운동 인증 애플리케이션 아이더, 경기 도심 등으로 코스 확장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걷기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아이더가 국내 걷기 여행길의 우수성을 알 리기 위해 매년 전개해 오고 있는 '아이더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고 신중해야 한다.

운 일은 성취된다.

로드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G PS 기반 운동 인증 애플리케이션 트랭글 내 '아이더로드 클럽' 가입자 수가 2021년 4월말 대비 약 5배 증가했으며, '아이더로 드' 관련 인스타그램 콘텐츠 수도 4000여 건을 기록하며 동기간 대비 약 5배 늘었다. 올해 아이더는 동해안(해파랑길 50개

코스)과 남해안(남파랑길 90개 코스), 제주

가 들어온다.

도에 이어 서울과 경기 도심까지 아이더로 드의 코스를 확장했다.

새롭게 추가된 아이더로드 서울·경기 도심 코스는 서울 둘레길 전구간(8코스). 서울 도심의 한양도성길, 근교산자락길, 생태문화길, 한강·지천길과 경기 둘레길 전구간(60코스)이다.

'아이더로드 캠페인'은 GPS 기반 운동 인증 애플리케이션 '트랭글'을 통해 손쉽 게 참여할 수 있다. 트랭글 앱 내 코스북을 통해 다양한 걷기 코스를 확인하고, 자신 의 걷기 활동을 기록·인증하면 된다. '아이

더로드 클럽'을 통해 완보 스템프를 모아 리워드를 받고, 참가자 간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아이더로드 코스를 걷고 완보를 인증하 거나 코스에 포함된 여행지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공유하면 다 양한 경품도 준다. 새롭게 추가된 서울과 경기 코스에서 참여 인증을 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매월 진행되는 참여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더 공식 블 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다. 자제하라.

5월 20일 (금) 음력: 4월 20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 **屋**別 호랑이 호랑이 행운색:흰색 행운색:적색 행운색:검정 행운색:적색 행운색:흰색 행운색:노랑 용 쥐 뱀 소 길방:북 길방:서 길방:서 길방:남 길방:남 길방:중앙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 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 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주위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 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 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 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 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 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 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 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 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 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 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 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 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 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 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큰 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 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겠지만 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 할 수 있다. 이때를 심기일전의 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이룬다. 것은 바라지 말라. 화불량을 주의하라. 이생길수있다. 노력하면 달성된다. 기회로 삼으라. **%** 개 િ છે 행운색:청색 행운색:적색 행운색:검정 행운색:검정 행운색:적색 행운색:청색 생물 돼지 원숭이 길방:동 길방:남 길방:북 길방:동 길방:북 길방:남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돛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 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 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 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 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 혁 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 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 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 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을 만회하고 걱정이나 번민에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 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 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 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 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 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 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 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

우고 착수하라.

운도 놓치게 된다.

#### 오늘의 날씨 20일(금) 서울 20/10 인천 20/10 춘천 20/30 13 27 대전 20/20 강릉 20/20 전주 20/20 14 14 28 28 26 부산 20/20 대구 20/10 광주 20/60 16 17 15 27 25 제주 창원 20/20 30/60 지역 18 15 최저 날씨 26 24 최고기온°C

<u>人至之</u> を The sportsdonga					제3829호	
발행인·편집	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	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산업경제부장	안도영 양형모	스포츠부장 사진부장	정재우 고종철	엔터테인! 인쇄		이정연 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	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	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	0 제보·	투고 02-361-	1616 sc	ol@donga.	com